

지난 1987년 제1회 오사카전시회를 시작으로 20년간 명성을 이어온 하수도전은 일본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올해는 국제전시장(빅사이트) 동관 1, 2, 3홀을 사용해 하수처리(기계·전기)존, 관로기자재존, 건설(토목·건축)존, 유지관리존, 설계측량존, 배수설비·계측기기류 시설 이용존 및 퍼블릭존으로 구성되어 7월 23일부터 5일간 개최되었다. 한편 44화째를 맞은 하수도연구발표회는 작년부터 한국세션이 신설되어 한국 측에서는 올해 6명이 발표를 하였다.

## 일본하수도협회(JSWA)의 하수도전시회, '2007 도쿄' 를 참관하다



### 강산이 두 번 바뀌어 완성된 우키마 물 재생센터

첫 번째 공식일정은 도쿄도 키타구에 있는 우키마 물 재생센터 견학으로 시작되었다. 도쿄 도내 17개 물 재생센터 중 하나로 주택가에 위치한 중간 규모의 크기였다. 48인으로 구성된 협회 참관단은 관계자들로부터 센터의 개요부터 처리공정 및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우선은 착공에서부터 완공까지 십수 년이 걸렸다는 점에 한 번 놀랐고, 그 오랜 공기에 걸쳐 건설된 센터의 처리용량이 10만톤이라는 점에 또 한 번 놀랐다. 완벽을 기하는 일본인 특유의 기질을 엿볼 수 있었다. 지리적 문제로 인해 외부 유입수관은 강 지하를 1km 정도 가로질러 매설했다고 한다. 지하매설로 인한 관리상의 어려움을 방지하고자 침전방지설계(사이폰방식) 및 각종 센서를 부착하여 유입수관을 관리하고 있었다.

처리공정을 살펴보기 위해 제어상황실과 처리장도 둘러 보았다. 깨끗하고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었으며, 외부 유입수의 냄새를 효과적으로 걸러내고 있어서 여기가 재생센터인지를 알아채지 못할 정도였다. 우리나라도 향후 이런 상태로 가야 한다며 모두들 입을 모았다.

### 빅사이트! 빅이벤트!

다음 일정은 하수도전 참관 및 연구발표회 참가였다. 빅사이트 전시장은 도쿄 시내에서 모노레일을 타고 가는 관광지로도 유명한 인공섬 오다이바에 위치해 있었다. 이번 전시회의 특징은 예년과 다르게 유지관리 및 관로기자재 분야의 전시부스가 두드러지게 많아졌다는 것. 민영화에 대비해 철저한 준비 자세에서 기인한 것이기도 하지만, 오랜 역사로 인해 하수도시설의 내구연한이 임박해지면서 기존설비의 대체 또는 갱신이 불가피해진 탓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엔지니어링 회사들의 컨설팅 검업 증가가 두드러졌고 무인화 및 원격감시 시스템을 활용해 갯생공사를 수행하는 장비도 선을 보였다. 또한 지진이 많은 나라인 만큼 파이프 이음새, 맨홀 등 지진 피해를 최소화시키거나 정상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설비 및 자재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퍼블릭존에서는 하수 유입수의 수질 향상을 위한 대책으로 기름을 적게 사용한 조리법을 선보이고 시식행사를 개최해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또한 어린이들이 하수에 대해 폭넓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수생식물에 미치는 영향 등을 인형극으로 만들어 공연하기도 했다. 몇몇 사업자는 물 재생센터를 공원화 및 관광지화하여 관광객 유치에 위한 홍보활동을 벌였다.

### 하수도 분야 동아시아의 저력 재확인

연구발표회 첫날, 우리협회 임동국 사무총장이 'ISO/TC224 평가시스템'에 대한 발표로 기초연설을 하였고, 일본 측은 국토건설성 하수도연구실 사카키바라 실장이 하수도기술의 최신동향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였다. 일본도 ISO/TC224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 평가시스템이 무난히 적용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다.

일본하수도협회 관계자들 및 발표회 좌장들과 함께한 오찬 자리에서는 올 가을 일본에서 열리는 ISO/TC 224 총회의 상호협력방안이 오갔다. 일본 측 하수도분과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사에키 일본하수도협회 기술이사는 총회 기간 중에 개최하는 심포지엄에 한국의 참석을 요청하였다. 임 총장 또한 양국 간 협력과 교류증진에 동의하면서 한일 양국이 협력하여 시장개방 대비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략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마지막 날에는 참관단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이번 전시회를 보고 느낀 소감을 공유했다. 오랜 역사와 앞선 기술을 보유한 일본의 하수도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향후 시장전망 및 흐름에 대해 예측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이구동성으로 감회를 밝혔다. 우리 협회도 일본하수도협회와 보다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향후 ISO/TC224 표준 제정에 있어 동아시아의 기술을 적용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